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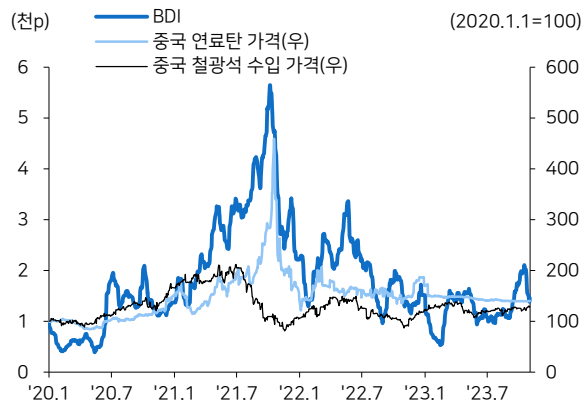
2023. 11. 8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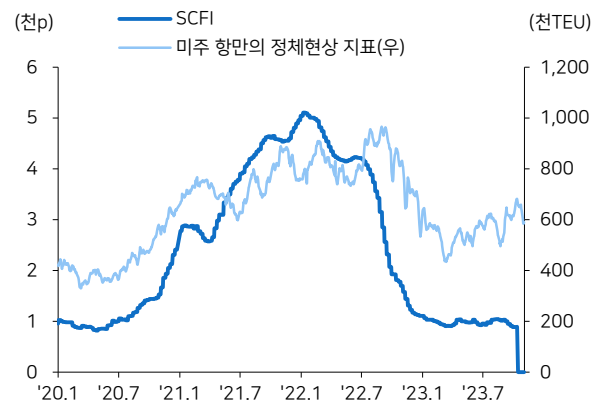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59.0p(+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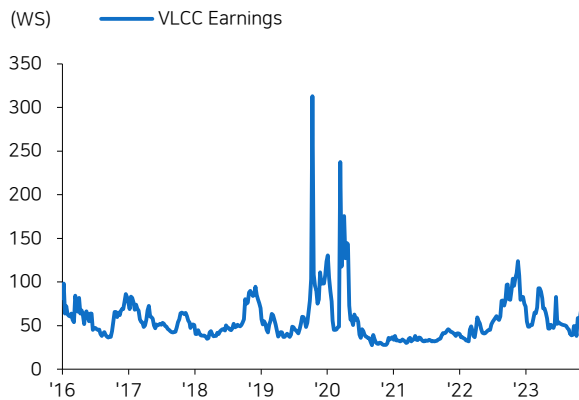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12.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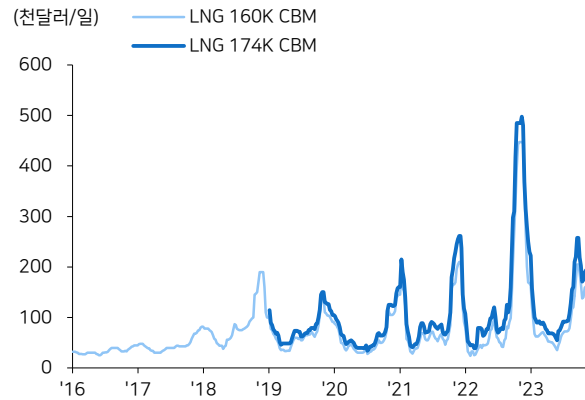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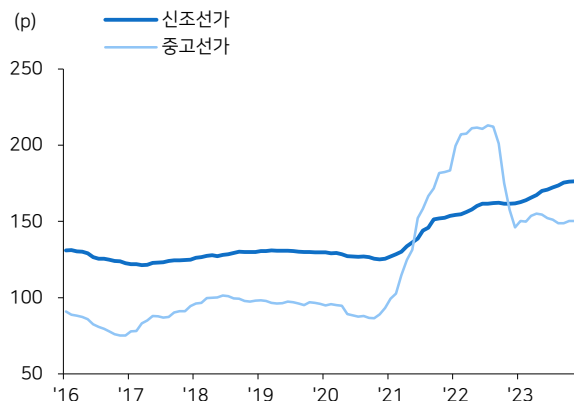
70.2p(+11.3p WoW)



LNG Spot 운임

161.3천달러(+2.5p WoW)
193.8천달러(+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6.2p(+0.2p WoW)
150.3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5.0달러(-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assive Qatar offshore tender poised for fresh delays

Qatargas가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NFPS) 해상 프로젝트의 40억달러규모 EPCI 4 technical offer 마감기한을 11월 초에서 최소 11월 29일로 연기했다고 보도됨. 2023년 연내 결과 발표 가능성은 낮고, 일부는 2024년 중순경에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짐. 한편, EPCI 4 입찰 참여업체는 McDermott-HD현대중공업, Saipem, L&T와 COOEC로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4as8tebw>)

HD현대중공업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HD현대중공업이 귀신고래 3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보도됨. 2022년 8월 HD현대중공업과 도리스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FEED 계약사로 선정돼 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HD현대중공업은 Hull 33기 제작, 풍력 터빈 결합 및 현장 설치 수행 설계와 산업화를 목표로 Vestas와 TF를 구축했다고 알려짐. 귀신고래 3호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단계적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업 운전개시(COD)를 목표로한다고 알려짐. (뉴시스) (<https://tinyurl.com/ktx7ebud>)

"유통물량 41% 쏟아진다"...HMM, 2억주 추가 상장

HMM이 오는 10일 보통주 2억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함. CB 전환 8천만주와 BW 행사 1.2억주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물량으로 알려짐. 전환가액 5,000원을 반영하면 각각 4천억, 6천억원규모에 해당한다고 알려짐. 7일 기준 HMM 전체 발행주식 수는 4.89억주로 새로 상장되는 2억주는 기존 전체 발행주식의 40.9% 수준으로 알려짐. (한국경제TV) (<https://tinyurl.com/mrj5tm8b>)

Car carrier owners unfazed by newbuilding glut as cars get loaded into containers

PCTC 수주잔고가 현재 선대의 31% 수준이지만, 넘치는 수요에 PCTC 선주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보도됨. 시장 수급이 타이트해 자동차를 컨테이너선에 싣고 있는 상황으로, 신조선 인도량을 높은 수요가 흡수할 수 있을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39rkrd5y>)

Russian coal exports set for dramatic cut next year, but not for the reason you might think

러시아산 석탄 수출량이 2024년 1,000만톤가량 줄어들 예정이지만 서방의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도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며 철도물류를 군수물품을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 내륙물류가 차질이 생기며 석탄 교역이 어려워졌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3zu546da>)

로봇진흥원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본격화...수요조사 착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서비스로봇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크게 1) 서비스 로봇 실증, 2) 규제혁신 로봇 실증으로 구분된다고 알려짐. 특히 '규제혁신 로봇 실증 사업'은 서비스 분야별 실증을 통한 수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규제 이슈를 발굴한 뒤 개선까지 연계를 제안하는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알려짐. (국제신문) (<https://tinyurl.com/2bxzpraw>)